

조선시대 주거의 사회적 문제

박 선 회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한 지 현 (전북대학교 석사과정 졸)

I. 머 리 말

조선시대의 주거 건축은 관아나 궁궐, 사찰 등과 같은 일부분의 권위 및 종교건축을 제외하고는 전체 백성들의 살림터로서 나름대로의 사회적 조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와 달리 내구성이 약한 건축재료와 구조기법에 의한 주거형성은 자연재해나 인재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이에 대한 조정의 관심은 물론 전체적 가옥관리에 대한 정책적 사안 등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조선시대의 주거에 대하여는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은 건축의 물리적 측면이 많았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주거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그 중에서 朱南哲(1980)과 申榮勳(1983)은 조선조의 주택에 관한 연구에 가사제한을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주로 척수내용에 따른 변화를 지적하였으며 洪亨沃(1982)¹⁾도 가사제한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이다. 박선희(1990)²⁾도 가옥의 규모, 구성과 치장, 방위에 대한 규제 등을 풍속적으로만 고찰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주택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찰은 별로 없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의 사회적 특성과 함께 제기된 주거문제의 양상은 오늘날과는 아주 판이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정에서 논의된 사회적 주거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의 분석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실증적 사료이며 정치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이 기록되었던 조선왕조실록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선왕조실록의 그 방대한 내용안에서 주거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선별하여 정리하므로써 조선시대 주거에 대한

1) 洪亨沃(1982). 한국 전통 주거생활 연구(1)- 조선시대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논문집 11. 인문사회과학편, 46-68쪽.

2) 박선희(1990). 조선시대 가옥규제 및 풍속, 한국주거학회지 1(2), 80-82쪽.

사회적 조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제공에 그 일차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선택했으며, 사용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³⁾에서 주거문제로 수집 가능했던 852개의 내용이 이용되었다.

2. 자료분석

왕조별로 총 내용의 변화를 검토하였는데 일수, 면수, 내용의 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각 한 제목의 글을 하나의 문제로 취급해 시대적인 변화를 검토하였다.

III. 맺 음 말

1. 가사(家舍)문제

가사문제에는 가사제한, 가대제한, 장식제한 등이 제기되었다. 원칙적으로 백성들은 각기 신분에 맞는 가사(家舍)·가대(家垜)에 대한 법적인 제한에 대해 흡족히 생각지 않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자기 신분에 맞는 규제보다 크게 규모를 늘리고자 노력한 흔적을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사제한(家舍制限) 문제가 발생한 건수는 총 45건으로 성종때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종때 11건으로 비교적 조선중기에 높게 발생했다. 그리고 그후 조선후기에 가사도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경종 이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3)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역대 임금의 단위로 하여 편년체(編年體)로 엮은 역사책으로, 태조(太祖)로부터 철종(哲宗)까지 25대 472년 간의 실록 총 4893권, 888책의 원본.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남아있다.

조선왕조실록 중 노산군(魯山君·端宗)·연산군(燕山君)·광해군(光海君) 시대의 것은 실록이라 하지 아니하고 《일기(日記)》라고 하였는데, 그 임금들은 모두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노산군(魯山君)은 폐위된 지 2백 여년만인 숙종(肅宗)때 복위되어 단종(端宗)이란 묘호를 올렸기로, 이때 이후 《노산군 일기(魯山君 日記)》는 《단종실록(端宗實錄)》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선조실록(宣祖實錄)》《현종실록(顯宗實錄)》과 《경종실록(景宗實錄)》은 각각 두 종류씩 있다. 당쟁이후의 실록은 집권당에 유리하게 기록되었다 하여 반대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를 수정하여 다른 실록을 편찬하는 예가 종종 있었는데,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과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 등이 그것이다.

가대제한(家垔制限) 문제는 총 14건으로 중종때 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선 전후기에 걸쳐 1건씩 골고루 나타났다. 가대제한 문제의 대부분인 11건은 왕자녀의 집터를 넓히기 위해 인가(人家)를 철거한 경우가 차지했다.

장식제한(裝飾制限)은 총 19건이 나타났는데, 중종때 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선전기에 꾸준히 보이다가 조선 후기에 가서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경종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2. 가옥(家屋)일반

가옥일반에는 가가(假家), 인가철거, 재목, 운돌, 집값, 재해로 인한 가옥파괴, 담장, 우물, 왜인거주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고 소수로는 용성, 대창, 문설치, 참호, 행랑 등이 나타났다.

가가(假家)문제는 모두 18건으로 선조·광해군 4건으로 가장 높았고, 숙종 세건, 성종 두건, 중종·인조·영조·정조·철종 한건 등 조선 중후기에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모든 목록에서 제외된 인가(人家)철거는 연산군과 선조때로 세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종·현종 두건, 중종·명종·현개·영조·정조 각각 한건씩 나타났다.

3. 궁궐(宮闕) 문제

궁궐(宮闕)에 관련 주거문제는 크게 궁궐수리와 궁궐주위의 인가철거, 왕자녀의 집으로 나타났다.

궁궐자체수리는 광해군때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산군 세건, 명종·선조 두건, 태조·세종·인조·효종·영조·정조 한건씩 전후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궁궐수리가 제일 높았던 시기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광해군때의 13건이었다. 궁궐주위의 인가철거는 연산군때 5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종 10건, 광해군 4건, 선조 3건 등으로 조선 중기에 높게 나타났다.

왕자녀의 집문제는 인조 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종 세건, 중종 한건 등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경국대전(1981). 일지사.
2. 강록 外(1989). 한국건축사. 문운당.
3. 대한건축학회편(1996). 한국건축사. 기문당.
4.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 발언.
5. 박선희(1990). 조선시대 가옥규제 및 풍속. 한국주거학회지 1(2).
6.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1977). 서울백년사 1권.
7.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1977). 서울백년사 2권.
8.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1963). 서울 특별시사 고적편.
9. 申榮勳(1983).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0. _____(1983). 조선조 한양 도성 안의 주택.
11. 유희옥(1984). 한국주거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속에서 본 가족과 주거의 관계.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 원영환(1990).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3. 이상옥(1972). 가가와 판자집. 주택 13(2).
14. 張慶浩(1996).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5. 조선왕조실록.
16. 조선왕조실록 CD 3장.
17. 주남철(1972). 서울의 고주택.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6호.
18. _____(1976). 한국 주택 略史-조선시대까지. 대한 주택공사.
19. _____(1997).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20. 한국사 25-조선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국사편찬위원회 발행.